

# 전문직관점에서 본 전국사서협회의 성립과 소강

## Establishment and Decline of the Korean Librarian Association from the View Point of Professionalism

이선우(Sunwoo Lee)\*

김기영(Giyeong Kim)\*\*

### 초 록

전국사서협회는 1990년 전국의 사서직을 대상으로 전문직 단체를 표방하며 설립되어 도서관소관부처 이관, 도서관법 개정 등 도서관계 중요 사안에 영향을 주었으나 1997년 이후 뚜렷한 활동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지금까지 협회의 역할 및 활동에 대한 본격적인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에 본고는 이러한 전국사서협회의 생성, 활동 및 소강에 대하여 전문직 관점을 통해 그 원인과 의의를 살펴보고자 한다. 전문직 단체의 관점에서 전국사서협회는 사서직 서비스 시장의 통제, 자율성의 획득을 통해 사서직의 전문직성을 높이는 방법으로 사서직의 전문직화를 꾀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었지만, 조직에 기반하고 있는 사서직의 특성은 협회 활동 소강에 일정 부분 영향을 주고 있음을 볼 수 있다.

### ABSTRACT

The Korean Librarian Association was established in 1990 for the professionalization of the librarian in Korea. So far there has been no research with the association as a main subject in spite of its importance in the history of Korean Libraries. In this study, we attempt to investigate the meaning and the importance of the association from the view point of professionalism. As a professional association, the Korean Librarian Association tried to get professional autonomy from the governing bodies and the market to reach higher level in professionalization. But the activities of the association has been radically declined since 1997, which would be affected by the character of librarianship that is mainly based not on individual characteristics but on organizational characteristics.

키워드: 전국사서협회, 전문직, 역사적 연구, 사서직의 특성, 전문직화  
professional, professionalization, character of the librarian, the Korean Librarian Association, autonomy of the profession

---

\* 연세대학교 문헌정보학과(asqa@naver.com) (제1저자)

\*\* 연세대학교 문헌정보학과(gkim@yonsei.ac.kr) (공동저자)

■ 논문접수일자: 2009년 2월 17일 ■ 초심사일자: 2009년 2월 21일 ■ 게재확정일자: 2009년 3월 2일  
■ 정보관리학회지, 26(1): 259-278, 2009. [DOI:10.3743/KOSIM.2009.26.1.259]

## 1. 서론

전국사서협회는 1990년 전국의 사서직을 대상으로 전문직 단체를 표방하며 결성된 단체로서 대략 1997년까지 활동하였으며 90년대 도서관계의 동향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이연옥(2001)은 전체 공공도서관 운동사의 한 부분으로 다루었으며, 김기영(2008)은 사서직의 전문직성, 사서직의 특성과 관련한 연구를 통해 간단한 언급을 하고 있으나 지금까지 연구의 주요 주제로 다루어진 바 없다. 이에 본 연구는 전국사서협회를 대상으로 그 성립과 활동의 소강을 전문직의 관점을 통해 살펴보고자 한다. 전문직 단체의 존재는 한 직업의 전문직 여부를 판단하는 중요한 요인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사서직의 전문직적 특성을 전국사서협회라는 전문직 단체의 동향을 통해 살펴본다는 의미도 포함하고 있다. 이를 통해 사서직이 가지는 타 전문직과의 공통점 및 차이점을 확인하고 사서직의 전문직화를 위해 사서직의 특성이 어떻게 반영되어야 할 것인가에 대한 실마리를 제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협회 활동의 시작과 끝을 각각 1989년 전국사서협회 준비위원회의 성립부터 1990년 창립 대회까지를 협회의 설립 시기로, 1997년 이후를 협회의 소강 시기로 구분하여 살펴본다. 협회의 설립 시기를 결정하는 것은 전국사서협회 준비위원회와 전국사서협회 모두 창립 대회와 같은 공식적인 발표가 있어 설정하는데 큰 무리가 없지만, 현재까지 공식적인 해체 발표가 없는 협회의 소강 시기를 구분하는 것은 쉽지 않다. 본 연구에서는 협회 관련 인물들과의 인터뷰와 협회 정기간행물이 중단

된 시기를 고려하여 1997년 이후를 협회의 소강 시기로 구분하였다.

사서직을 대표하는 전문직 단체로는 한국도서관협회가 존재하고 있다. 그럼에도 본 연구에서 한국도서관협회의 활동이 아닌 전국사서협회의 성립과 소강에 대해 다루려는 것은 전국사서협회가 전문직화를 위한 다양한 요소들 중 사서직의 자율성 확보를 위한 전문직 단체의 활동을 잘 보여주고 있을 뿐 아니라, 한국도서관협회가 여전히 사서직을 대표하는 전문직 단체로 존재하고 있는 반면 전국사서협회는 현재 거의 활동을 중지한 상태인데, 이러한 전국사서협회 활동의 소강과 관련하여 사서직의 특성을 잘 드러내고 있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이다.

본 연구를 위해서 역사적 연구 방법과 심층 인터뷰법을 병행하여 적용한다. 전국사서협회, 전문직과 관련한 사료의 수집, 문헌 연구를 바탕으로 전국사서협회의 성립과 관련한 요소들을 분석할 것이며, 전국사서협회 관련 인물들과의 심층 인터뷰와 전문직으로서 사서직의 특성을 통해 전국사서협회의 소강과 관련한 요소들을 분석할 것이다. 전문직으로서의 사서직의 특성은 국내 사서직이 조직정체성과 직업정체성의 구분이 뚜렷하지 않다는 김기영(2008)의 연구를 바탕으로 파악한다.

문헌 연구를 통해 설정한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전국사서협회는 사서직의 전문직성을 높임으로써 국내 사서직의 전문직화를 꾀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둘째, 전국사서협회 활동의 쇠퇴에는 전문직으로서의 사서직의 특성, 즉 조직 정체성과 직업 정체성이 뚜렷하지 않다는 특성이 영향을

주었을 것이다.

## 2. 이론적 배경

1960년대 후반까지 전문직사회학은 기능주의적 관점이 지배적이었다(Macdonald 1995). 기능론적 관점은 전문직과 국가 사이의 경제적 합리성의 논리에 근거를 두고 있다. 국가의 입장에서는 전문직의 자율성을 보장함으로써 전문직으로 하여금 전문직 스스로를 통제하게 하고 사회는 이를 통해 전문직 서비스를 이용하는데 있어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으며 수요자는 전문직의 자율적 통제를 통한 양질의 서비스를 기대할 수 있다. 전문직의 입장에서 는 시장의 독점, 정부, 사회 기관의 통제로부터의 자유, 수요자의 통제와 같은 자율성의 확보를 통해 경제적 이익과 사회적 위세와 같은 이익을 얻을 수 있다. 또한 기능론적 관점은 전문직에 대해 자질론적 접근 방식을 취한다. 즉, 전문직이 가져야할 이상적인 자질들을 나열하여 그것에 비추어 실제 직업 집단이 전문직에 속하는지 속하지 않는지를 결정하고, 그것을 이용하여 연속선상에 실제 직업들을 분류하여 위치시키려고 하였다(Macdonald 1995). 다시 말해 전문직이 가져야할 특성, 예를 들면 전문직 단체, 전문직 윤리, 서비스 시장의 독점 등과 같은 특성들을 모두 가지고 있는 직업만을 전문직으로 분류하고 이와 같은 특성 중 하나라도 갖추지 못하고 있는 직업들은 전문직이 아닌 것으로 분류하였다. 때문에 기능론적 관점에서는 전문직이 가진 이상적인 특성들을 얼마나 잘 추출해 내느냐가 중요한 문제가 된다.

이에 반해 권력론적 접근은 전문직을 시장에서의 기회를 독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하나의 시장 조직으로 인식한다. 권력론적 관점은 전문직의 자율적 통제 양식을 획득하는 과정에 초점을 맞추면서, 전문직이 자율적 통제를 획득해 가는 과정을 통해 시장에서의 지배력을 확대하고 그에 따른 경제적 보상을 극대화 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으며, 자율성은 전문직이 시장과 국가의 간섭을 통제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자원을 동원하고 조직화하여 획득한 결과로 본다(구혜란 2003). 전문직 또한 다른 직업과 마찬가지로 시장에서 자신들의 경제적, 사회적 이익을 증가시키기 위해 경쟁하며, 그 경쟁에서 살아남은 직업만이 전문직의 지위를 획득하게 된다. 권력론적 관점에 있어 전문직화는 시장 내에서 타 직업과의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한 일련의 프로젝트라고 할 수 있으며, 이 과정에서 전문직성을 획득하거나 강화하는 방법으로 해당 직업의 전문직화를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전문직의 자율성은 경쟁 과정 즉 시장에 대한 통제력을 확대해 가는 과정에서 획득되는 동시에 통제력을 확대할 수 있는 효율적인 수단이 된다.

구혜란(2003)은 이러한 기존의 관점들에 대해, 첫째, 두 관점 모두 전문직의 자율성이 어느 사회에서나 동일한 형태로 존재하는 것으로 전제하고 있으며, 둘째, 전문직의 자율적 규제가 전문직 서비스를 규제하거나 전문직의 사회, 경제적 독점권을 확보하기 위해 가장 효과적이며 유일한 방법이라고 전제하고 있고, 셋째, 전문직집단을 하나의 동질적인 집단으로 규정하고 있다는 점을 비판하면서 비교 역사적 접근의 필요성을 주장하였다. 비교 역사적 접근은

각 나라의 특수성이 직업 집단의 전문직화와 전문직서비스가 규제되는 과정에서 어떠한 차이를 가져왔는가에 보다 중점을 두고, 전문직의 자율성이 각 나라의 역사적 특수성에 따라 각기 다른 형태로 나타난다는 점에 주목한다. 전문직서비스의 규제와 관련한 부분은 본 연구의 범위를 벗어나므로 여기서는 전문직과 전문직화는 국가, 사회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는 논점만을 참고로 한다.

전문직에 대한 접근법들과 함께 전문직을 보는 시각 또한 시대에 따라 변해왔다(김기영 2008). 기능주의론적 접근과 함께, 초기에는 전문직이 가진 특성을 나열하고 나열된 모든 특성을 가지고 있는 직업을 전문직으로 그렇지 않은 직업을 비전문직으로 분류하는 이분법적 시각이 우세하였으나, 이후 전문직을 전문직화 정도에 따른 하나의 직업 연속체로 파악하고, 상층부로부터 전통적전문직, 신전문직, 준전문직, 보조전문직으로 분류하였다(Roos 1992). 최근에는 각각의 전문직을 독립적인 특성을 지닌 전문직종으로 파악하여 자유전문직, 조직중심 전문직, 기업가형전문직으로 분류하거나(Carter 2007), 같은 맥락에서 전문직을 자유전문직, 자본전문직, 정치적전문직, 국가전문직, 학문전문직으로 분류하기도 하였다(Brante 1990).

이러한 논의들을 종합해 볼 때 전문직이나 전문직화는 하나의 고정된 실체나 과정이라고 말하기 어렵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전문직과 전문직화의 모습은 국가, 사회, 시대, 그리고 각 전문직마다 다양하게 나타난다는 입장을 취한다. 이는 특정 국가, 특정 시대의 직업 집단의 전문직성과 전문직화의 과정을 연구하는 것이 개별적으로 각각의 의미를 지닐 수 있음을 의미하며,

본고의 논의 대상인 전국사서협회에 대한 논의가 국내 사서직의 전문직화 과정에 일정한 역할이 있다는 판단에 대한 근거가 된다.

### 3. 방법론

본 연구를 위해 역사적 연구 방법과 심층 인터뷰법을 이용한다. 연구를 위해 수집된 자료는 다음과 같다. 국립중앙도서관, 한국도서관협회, 전국사서협회의 정기 간행물인 도서관, 도서관문화, 전국사서협회소식지를 분석하였다. 전국사서협회소식지의 경우 1990년부터 1996년까지 총 23호가 발행되었으며 전국사서협회 임원을 통해 확보하였다. 나머지 두 정기 간행물은 모 대학교 도서관을 통해 확보할 수 있었으며, 전국사서협회의 정기간행물의 분석을 토대로 할 때 전국사서협회가 가장 활발한 활동을 보였던 1989년과 1992년 사이의 자료들을 확인하였다.

전국사서협회에서 발행한 도서관자료집은 당시 전국도서관학과연합회를 통해 조사한 공공도서관 실태 조사 뿐 아니라 공공도서관의 문화부 이관에 관한 각종 단체의 관련 자료들, 전국사서협회의 창립 준비위원회부터 창립 초기까지의 자료들과 함께 당시 도서관계와 관련한 신문 기사들을 정리한 자료로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다만 전국사서협회의 관점이 강조된 면이 있어 타 자료들과의 비교 평가가 필수적이다. 신문 기사의 경우 일간지의 성격 때문에 그 양이 너무나 방대하고 대부분의 신문이 당시 자료들을 웹으로 제공하고 있지 않는 상황이라 모든 자료를 확인하는 것에는 무리가

있었다. 우선적으로 앞에 언급한 도서관자료집 내의 스크랩 기사와 전국사서협회소식지의 신문 기사 스크랩 파트를 참고로 하였다. 도서관 자료집에는 도서관 소관 부처 이동과 관련한 49건의 신문, 주간지 기사와, 공공도서관과 관련한 26건의 신문 기사가 복사본으로 스크랩되어 있으며, 전국사서협회소식지의 신문 기사의 경우 해당 기간의 관련 신문 기사를 짧게 요약한 것으로 원본의 의도가 변질되었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필요한 기사의 경우 원본과의 대조를 통해 확인하였다.

국립중앙도서관60년사와 같은 형식의 개별 도서관사들 중 국립중앙도서관, 전북대학교도서관, 서울특별시 공공도서관 변천사, 남산도서관, 제주도서관의 도서관사를 참고하였으며, 개별도서관 정기간행물의 양 또한 다양하여 모두 확인하기에는 무리가 있어 선별적인 수집 과정을 거쳤다.

전국사서협회 임원이었던 C와의 인터뷰와, 최근 논의되고 있는 전국사서협회 재결성 회의 자료를 통해 전국사서협회에 대한 기초적인 정보를 수집하고, 전국사서협회 관련 인물 두 명(각각 A, B로 칭한다)과의 심층인터뷰를 실시하여 각각 한 시간, 네 시간 가량의 인터뷰를 가졌으며 인터뷰 대상자의 동의를 받아 녹취하여 기록하였다. A와의 인터뷰 내용 중에 언급되는 D는 전국사서협회 관련 인물로 직접적인 인터뷰를 가지진 못하였다. 재결성 회의 자료의 경우 참가 인원 개개인의 동의를 얻지 않았기 때문에 직접적인 인용을 하지 않았다. 심층 인터뷰 자료는 수집된 자료와 더불어 사건의 배경 뿐 아니라 이면에 존재할 수 있는 의미를 유추하는데 도움을 주었다.

통계와 같은 2차 자료들은 통계청, 한국교육개발원, 교육과학기술부, 한국 문헌정보학 엘로우 페이지의 웹페이지를 통해 수집하였으며, 경제, 인구 지표, 대학 관련 통계 자료, 도서관학과, 도서관 관련 통계 자료들을 수집하였다.

결과적으로 수집된 사료들은 전국사서협회의 성립과 활동에 대한 주된 근거로 이용되었으며, 협회 활동의 소강에 대해서는 심층 인터뷰 자료가 주된 근거가 되었다.

이와 더불어 전문직에 대한 문헌 연구와 수집된 자료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전국사서협회를 해당 전문직을 대표하는 전문직 단체에 준하는 조직으로 정의한다. 이를 위한 근거로는,

첫째, 단체의 목적과 사업 내용이 당시 도서관계 전문직 단체인 한국도서관협회와 비교할 때 큰 차이점을 보이지 않은 점,

둘째, 전문직 내의 분화가 나타날 수 있음을 전제로 할 때, 한국도서관협회의 지역별, 관종별 분화 형태에 전국사서협회를 포함시키는 것은 지역, 관종이라는 명확한 기준에 비추어 부자연스러운 반면, 한국도서관협회의 지역, 관종별 분화 형태를 전국사서협회에 적용시키는 것은 자연스럽다는 점을 들 수 있다(실제 조직은 지역을 상위 단위로 하고 하위 단위로 관종별 조직을 두었다). 예를 들면 한국도서관협회의 하부 조직인 학교도서관협회의 경우 전국사서협회에서는 사서교사협회의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고, 공공도서관협회의 경우 공공도서관사서협회의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으며, 실제로 전국사서협회에서는 학교도서관분과, 공공도서관분과의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결과적으로 전국사서협회와 한국도서관협회와의 뚜렷한 차이점을 찾을 수 없다는 점, 전국

사서협회를 전문직 내의 분화로 설명하는 것보다 한국도서관협회와 동일한 수준에 놓는 것이 자연스럽다는 점에서 전국사서협회를 본 연구에서 정의하는 전문직 단체로 정의하는 것에 무리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 4. 전국사서협회의 성립과 주요 활동

### 4.1 전국사서협회의 성립 과정

전국사서협회의 성립 과정을 살펴보기 위해 우선 전국도서관학과 학생연합회(이하 전도련으로 칭함)에 대해 언급할 필요가 있다. 이는 전국사서협회의 공식적인 발표에 따르면 전도련의 공공도서관 실태 조사를 통한 전국사서협회 성립의 동인을 지적하고 있고, 전도련을 전국사서협회의 모태로 보는 시각이 존재하기도 하며(최정태 1990 ; 이연옥 2002), 전국사서협회 창립 초기 주도적인 활약을 했던 인원들이 졸업과 함께 전도련 활동을 마치고 현장에서 사서로 재직하기 시작한 인원들이었기 때문이다. 전도련은 각 지역별로 존재하던 도서관학과연합회가 1988년 총무처의 공무원 특별 채용에 대한 예규 개정 문제를 통해 전국적인 단위의 학과연합회로 발전한 것이다(A와의 인터뷰). 전도련은 이후 도서관 정책 소관부서 이관, 도서관 진흥법에 대한 성명서 발표, 전국 공공도서관 실태 및 도서관 정책 소관 부서에 대한 사서 설문 조사 등의 꾸준한 활동을 전개 하며,

후에 결성되는 전국사서협회와 협력 관계를 유지하게 된다(전국사서협회 1991). 전도련에서 현장 사서를 대상으로 실시한 전국공공도서관 실태 및 도서관 정책 소관 부서에 대한 설문 조사 자료는 일간지를 통해 이슈화되기도 하였고 전국사서협회를 설립하는데 계기가 되었다고 협회 결성준비위원회를 통해 밝히기도 하였다(전국사서협회 1991). 결국 졸업과 함께 전도련 활동을 끝내게 된 몇몇 인원들은 전도련 활동을 통해 인식하게 된 국내 도서관계의 문제점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게 되고 이는 곧 전국사서협회의 설립이라는 모습으로 구체화 된다. 당시 도서관계 관련 단체는 학회의 형태를 제외하고는 한국도서관협회와 대학도서관 관련 단체, 기관장의 모임 등의 형태만 존재하고 있어 도서관 문제에 뜻이 있는 인원들이 참여하여 일할 수 있는 공간은 극히 부족한 상태였다.

A와 D는 직접 현장 사서들을 만나서 협회의 취지를 설명하고 회원을 확보하기 시작한다. A와 D는 영남 지역 도서관을 중심으로 하여 현장에 종사하는 개인사서 회원을 600명 이상 확보하였고(이연옥 2003)<sup>1)</sup> 이를 바탕으로 협회 설립에 대한 현장 사서들의 지지를 확신하게 된다. 회원과 임원을 확보 한 후 전국사서협회는 결성준비위원회를 발족시킨다. 결성준비위원회를 통해 공공도서관 문화부 이관에 대한 한국도서관협회의 미온한 태도를 비판하고 전국사서협회를 결성하게 된 배경과 협회의 목적, 추진할 사업 등을 밝히게 된다(전국사서협회 1991).

발표 내용 중 특히 공공도서관 소관부처 이

1) 최정태(1990)의 자료에 의하면 회원 수를 350명으로 추산하고 있다.

관 문제와 관련하여 공공도서관의 관장들이 현장 사서들에게 이관 반대 서명을 강요하고 반강제적인 서명 작업을 벌인 일은 전국사서협회의 발족과 현장 사서들의 협회에 대한 관심과 참여에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보인다. 결성준비위원회는 도서관계의 중론이 공공도서관 소관부처의 문화부 이관으로 모여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국립중앙도서관에서 공공도서관 지역 대표 도서관장들의 모임을 통해 각 도서관장들이 직접 직원들(행정직, 기능직, 사서직 포함)에게 서명 작업을 벌여 도서관 업무의 문교부 관장을 주장하고 있는 것을 거론하면서, 서명 작업에서 서명을 거부하는 사서들에게 협박과 회유를 통해 서명을 강요하고 있으며 출근하지 않아 서명하지 않은 직원들의 서명까지 조작하는 등의 반강제적인 서명 작업이 진행되고 있음을 비판하였다(전국사서협회 1991). 이 사건은 전국사서협회 준비위원회 결성 취지문을 통해 다시 한 번 언급되는데, 서명 작업이 다음과 같이 협회 설립을 위한 발화점이 되었음을 밝히고 있다.

‘전국의 사서 여러분!

작금에 공공도서관장들의 ‘도서관행정 이관 반대 성명’ 과정에서 공공도서관 사서들에게 각종의 압력과 회유가 가해지고 있다는 사실에 직면해서, 우리들은 더 이상 도서관에 관한 문제에 대해 수수방관할 수 없다는 결론에 도달하였습니다.’(전국사서협회 1991, 241)

협회를 창립하기 위한 과정에서 전국사서협회는 외부의 다양한 압력과 부딪치게 된다. 전국사서협회 발기인대회에 이르러서는 도서관

현장으로부터 ‘행사에 참석하려면 사표를 쓰라는 등의 압력을 가하고 있을 뿐 아니라 전 사서를 비상근무시키는’(전국사서협회 1991) 등의 압력이 가해졌으며, 공공도서관의 경우 도서관 관련 비공인협회 결성에 대한 지도와 감독을 철저히 하라는 공문을 통해 협회에 대한 기존 도서관계의 시선을 확인할 수 있다.

창립 대회 전까지 1-5호의 전국사서협회통신이라는 협회지를 통해 활동을 계속하던 전국사서협회 결성준비위원회는 1990년 10월 9일 여성백인회관에서 창립대회를 통해 정식으로 협회의 모습을 드러낸다. 전국사서협회는 창립대회를 통해 300백 명 이상의 회원을 확보했음을 밝히고 창립선언문, 협회 정관, 협회 강령 등을 발표하고 협회의 임원을 선출하였다(전국사서협회 1991).

#### 4.2 사서교육원의 준사서 과정 철폐

사서직의 서비스 시장은 두 가지 차원에서 생각할 필요가 있다.

첫째, 사서의 경우 사서가 제공하는 서비스는 도서관의 자료, 곧 도서관을 통해 이루어지기 때문에(김기영 2008), 도서관 내에서 독점적 지위를 가지는 것이 곧 서비스의 제공을 독점하는 의미를 가질 수 있다. 이는 이제환(2003)의 연구에서 사서가 도서관을 독점적인 영역을 가지는 것을 사서직의 전문직성으로 생각한 것과 상통하는 것이다.

둘째, 도서관을 단위로 하여 전체 경제 체계 아래에서 도서관 서비스 공급의 독점 또한 넓은 의미의 사서직 서비스의 독점으로 볼 수 있다. 다시 말하면 사서직 서비스가 이루어지고

있는 도서관 서비스의 독점 또한 사서직 서비스의 독점과 관계를 가지게 되는 것이다. 예를 들면 의사, 변호사와 같은 직업은 개인이 운영하는 병원이나 변호사 사무실을 통해 수요자와 직접적으로 거래가 성립할 수 있기 때문에 이들의 1차적인 수요자는 서비스의 소비자들이 되지만, 사서의 경우 도서관을 통해서 수요자와의 거래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사서를 필요로 하는 1차적인 수요자는 도서관 이용자가 아닌 도서관이 되고, 사서직의 시장 독점은 도서관 내의 사서의 독점적인 지위에 따라 달라진다. 그러나 전체 경제 체계 아래에서는 사서가 단독으로 도서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므로 전체 경제 체계 하에서의 사서직의 시장 장악력은 도서관이 얼마나 도서관 서비스를 독점할 수 있는가가 문제가 된다.

먼저 사서직 서비스의 독점은 의사, 변호사의 그것과는 다른 형태를 띠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의사와 변호사의 경우 법을 통해 자격에 따른 업무의 영역을 정의하고 자격이 없는 자가 해당 업무를 행하는 것을 금지하는 방법으로 서비스 시장의 독점이 이루어진다. 사서의 경우 도서관법을 통해 도서관의 업무를 규정하고는 있으나 도서관 내에서 사서의 직무를 따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며, 도서관 내에서의 독점적인 지위도 단순히 도서관이 규모에 따라 달라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 의사와 변호사에 비해 상대적으로 약한 구속력을 가지고 있다.

다음으로 전체 경제 체제 하에서의 도서관 서비스의 독점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살펴보면, 도서관법에 따르면 일정 수준 이상의 시설을 갖출 경우 도서관을 설립하고 도서관을

통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에 대한 특별한 규제가 없다. 이는 도서관이 영리 기관의 성격보다 비영리 기관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이지만, 결과적으로 도서관이 가진 서비스 시장을 통제하는 힘은 의사나 변호사보다 약할 수밖에 없으며, 도서관을 통해 이루어지는 사서직의 서비스의 독점은 의사나 변호사보다 약할 수밖에 없다. 이처럼 사서직 서비스의 서비스 시장의 독점은 도서관 내의 사서직 서비스의 차원과 전체 시장 내에서의 도서관 서비스의 차원 모두 의사나 변호사와 같은 전문직들에 비해 느슨하고 낮은 수준의 독점을 보여 주고 있다.

전국사서협회는 결성준비위원회부터 전국사서협회 창립 초기까지 사서교육원을 통한 준사서 양성 과정을 폐지를 지속적으로 주장하였는데, 이는 준비위원회에서 밝힌 전국사서협회에서 추진해야 할 일, 준비위원회의 요구를 통해 반복되어 나타나고 있다(전국사서협회 1991). 전국사서협회의 주장은 당시 2개가 존재하였던 사서교육원 자체의 폐지보다는 사서교육원을 통한 준사서 과정을 없애자는 데 초점이 있었다. 다시 말해 준사서, 2급 정사서의 교육을 통한 2급 정사서, 1급 정사서 양성 과정은 인정을 하되 현재 사서자격증을 소지하지 못한 사람들이 새로 준사서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는 경로를 차단하고자 하였다. 다음의 인터뷰 내용으로 그것을 확인할 수 있다.

‘철폐는 준사서 과정을 철폐하자는 것이었어. 사서교육원을 무조건 폐지시키긴 그렇고, 준사서에서 정사서로 가려면 교육 과정을 밟아야 하잖아.’(A와의 인터뷰)



‘교육원 가서 교육과정 밟고 정식 직원이 된단 말야 이 사람들이. 후배들의 길을 막는 것이고 사서들의 전문성이 약화되는 것이란 말이지.’(A와의 인터뷰)

‘제대로 교육을 받은 의식 있는 사서들을 현장에 투입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논의의 두 번째 이슈로 떠올랐죠. 그 과정에서 나왔던 것이 과연 사서직 양성 제도가 타당하느냐라는 것이 내부적인 고민으로 떠올랐죠. 미국의 사례 같은 경우 주제 배경에 대학원까지 나와야 자격증을 부여하고 있는데, 우리 같은 경우 4년을 하면 자격증 부여를 해주고 있고, 그런데 이제 사서교육원이라는 과정은 1년 과정, 속성으로 양성이 되는 과정이고 그러다 보니 스킬만 가르치지 실질적으로 문헌정보학에 대한 철학과 같은 것들에 대해 1년 과정으로 양성해 내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문제 제기들이 있었죠.’(B와의 인터뷰)

‘특정 대학의 사서교육원을 없애라는 것보다는 단기 속성 과정은 문제가 있다. 교육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라는 거죠.’(B와의 인터뷰)

이와 같은 준사서 과정의 폐지에 대한 전국사서협회의 공식적인 입장은 사서의 질을 높이는 것이었다. 이는 전국사서협회 발기 결의문이나 우리의 결의를 통해 나타나고 있는데, 전국사서협회는 준사서 과정의 폐지를 위한 근거로 과거 현장의 부족한 사서 인원을 보강하기 위한 역할로서의 준사서 양성 과정은 대졸 정사서의 공급 증가와 함께 필요성을 잃었으며, 준사서 양성 제도가 현장의 부조리를 정당화시키는 방법으로 사용되어 오면서 이로 인해 사

서의 전체적인 수준을 저하시키는 결과를 가져오고 있다고 하였다(전국사서협회 1991).

서비스 종사자의 공급이 수요에 비해 높을 경우 전문직이 서비스 공급자의 수를 통제하기 위한 가장 효과적이면서 간단한 방법은 전문직의 자격 제도를 이용해 해당 직업으로의 진입 장벽을 높이는 것이다(Macdonald 1995). 앞에서 언급했듯이 진입 장벽으로의 전문직 자격 제도는 서비스 종사자의 공급을 조절하고 서비스 종사자의 수준을 유지시키며, 전문직의 사회적 위세에도 영향을 준다. 진입 장벽을 높임으로써 서비스에 종사하고자 하는 사람의 수를 조절하고, 높은 기준을 통해 좀 더 적은 사람에게 자격을 부여하며 이는 곧 서비스 종사자의 수준과 전문직의 사회적 위세를 높이는 것이 된다. 사서직에 대한 수요를 도서관 내의 사서직의 수요와 전체 경제 체계 안에서의 도서관에 대한 수요로 나누어 볼 때, 전국사서협회가 사서직 서비스 시장을 통제하는 데 있어 사서 자격증 제도와 관련한 사서교육원 문제, 즉 도서관 내의 사서직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한 것은 도서관이라는 기관에 속한 사서 개인집단이 사회에서의 도서관 서비스 공급을 통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전국사서협회의 서비스 공급자의 통제는 도서관 서비스의 통제가 아닌 도서관 내의 사서직 서비스의 통제의 방법으로 나타났으며, 이것이 곧 사서교육원과 같은 사서자격제도에 대한 규제로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결과적으로 전국사서협회는 사서교육원의 준사서 자격 제도의 통제를 사서직의 전문직화를 위한 수단으로 이용하였지만 그 과정에서 이러한 수단의 필요성과 정당성에 대해 사서직

집단 내에서 전적으로 받아들이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사서들은 사서의 자격을 위해 필수적으로 전국사서협회에 가입할 필요성이 없었으며 사서자격증 자체의 급수에 따른 효력(준사서와 정사서의 차이)도 크지 않아 더 높은 급의 자격을 위한 동기 부여도 존재하지 않았다. 기존 사서교육원 출신의 준사서와 준사서 과정에 있는 이들은 자신들의 자격을 보증해 주는 자격 제도의 폐지에 동의할 이유가 없다. 이들을 설득하지 못한 것은 전국사서협회가 내세운 사서교육원의 준사서과정 폐지의 사업을 특정 세력을 위한 사업으로 인식하게 만들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뒤에 언급할 전국사서협회를 보는 외부의 시각들 중 전국사서협회지 12호에 실린 다음의 내용에서 확인할 수 있다.

‘협회 출범 당시부터 우리의 출범을 못마땅하게 보는 일부 사람들로부터 전국사서협회가 지방 모대학 출신들의 세력 확장을 위한 조직이라는 등, 사서교육원 출신 사서를 배척하기 위한 조직이라는 등의 유언비어가 난무했습니다.’(전국사서협회소식지 12호 1990, 1)

뒤에 언급하겠지만 이러한 시각은 결국 전국사서협회의 인력 부족에 대한 한 원인이 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 4.3 공공도서관 관장의 사서직 보임을 위한 활동

국공립 공공도서관 관장의 사서직 보임은 전국사서협회 결성 전부터 이미 도서관계에서 제기되고 있던 사안인데, 예를 들면 1986년 전국

도서관대회를 통해 법 개정 방안을 논의하면서, 공공도서관과 도서관법 개정 방향의 기타 문제로 전문직 사서에 관한 규정을 공공도서관운영에 맞도록 강화해야 하며, 공립의 공공도서관장은 외국의 경우처럼 전문직 사서로 보함을 원칙으로 해야 한다는 문제 제기가 이루어진 것을 볼 수 있다.

전국사서협회의 구체적인 문제 제기는 1987년 개정 도서관법의 조항에 있었는데, 당시 개정 도서관법 제 23조(공립공공도서관의 관장 및 운영위원회)에서는 ‘①공립공공도서관의 관장은 사서직 또는 행정직으로 보한다.’라고 규정하여 행정직 인사가 공공도서관의 관장직을 맡는 것을 허용하고 있었다. 이 조항은 1991년 도서관법이 도서관진흥법으로 개정되면서 ‘제 24조(국공립공공도서관의 관장 및 운영위원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립, 운영하는 공공도서관의 관장은 사서직으로 보한다.’와 같이 바뀌었으나 부칙으로 ‘제4조(국공립공공도서관의 관장에 관한 경과조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립, 운영하는 공공도서관의 관장은 제24조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까지는 사서직 또는 행정직으로 보한다.’라 하여 1997년까지의 유예 기간을 두었다.

당시 공공도서관 관장직은 행정직 인사로 채워져 있거나 겸직의 형태를 보이기도 하였고, 은퇴를 앞둔 인력을 위한 쉬어가는 한가한 직책으로 인식되고 있었는데(김정근 1995), 이러한 현실과 관련해서 공공도서관 관장직이 문제가 되는 이유는 공공도서관에서 관장이 가지는 지위와 비중에 있다. 일단 한 기관의 기관장이 해당 기관에 미치는 영향력이야 따로 증거를

들어 논할 필요가 없을 만큼 당연한 것이지만 몇몇 자료를 통해 당시 공공도서관에서 관장이 가지는 의미를 유추해 보기로 한다. 전국사서협회는 전국사서협회 통신 3호를 통해 직설적으로 공공도서관에서의 관장의 지위에 대한 언급을 하고 있는데 다음과 같다.

‘전국사서협회에서 추진해야 할 공공도서관 사업안 중,

사실 공공도서관의 자료구입에서부터 화장실에 이르기까지 관장의 결재를 거치지 않는 것이 없으므로 도서관의 모든 업무는 관장에 의하여 좌지우지된다고 하여도 과언이 아니다.’(전국사서협회 1991, 269)

전국사서협회의 비판적인 논조를 감안해도 공공도서관에서 관장이 가진 영향력이 작지 않음을 유추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B는 인터뷰를 통해 협회 활동이 쇠퇴한 이유를 말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모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당시에는 전국사서협회에 참여하면 회사에서 자르겠다고까지, 관장들이 명단 관리를 하던 시절이라.’(B와의 인터뷰)

개인이 설립한 사립도서관을 제외한 모든 도서관은 상위 소속 기관을 가지고 있다. 공공도서관은 정부 기관의 산하에 있고, 대학도서관, 학교도서관은 각각이 속해 있는 교육 기관을 가지고 있으며, 전문도서관 또한 상위 소속 기관을 가지고 있다. 상위 소속 기관으로부터 도서관이 가지는 자율성은 사서직의 자율성에 영

향을 준다. 도서관에서 관장의 영향력은 앞에서 예를 들었던 것처럼 절대적이라 할 수 있기 때문에, 관장의 자율성은 도서관의 자율성과 관계를 가지며 자연스럽게 사서직의 자율성에도 영향을 미친다. 결국 상위 소속 기관으로부터 관장이 가지는 자율성은 사서직의 자율성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기 때문에 전문직 관장의 유무가 문제가 되는 것이다.

전국사서협회가 주장했던 전문직 관장, 즉 사서직 관장의 의미는 단순히 사서자격증을 지닌 자를 의미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전국사서협회소식지 4호 사설을 통한 사서교육원에 대한 비판 중 다음과 같은 내용을 볼 수 있다.

‘제목: 이제는 우리가 나서야 할 때이다.

....예로 97년부터는 사서직으로 관장을 보하게 되어 있는 법조항은 그 시점에 이르러 그를 담보할 수 있을 만큼의 사서직이 확보되지 못할 것이 거의 확실하다고 판단되는 현 시점에서는 어떤 결과로 나타나게 될 지 예측하기 어렵다... 관장의 사서직 보임을 위한 준비를 시작해야 한다...1997년이 되어 사람이 없으니 할 수 없이 현재 있는 관장구조를 그대로 유지한다거나 단기 교육으로 사서자격을 부여하여 문제를 호도하고자 하는 기도가 소용없게 되도록 철저한 사전준비가 필요하다.’(전국사서협회소식 제4호 1991, 3 생략은 저자주)

도서관진흥법에 따른 사서직 관장의 유예 기간을 사서교육원을 이용하여 단순히 현재 재직 중인 관장들이 사서자격증을 취득하는 방식으로 정당화하지 못하도록 해야 하며, 도서관의 중요 직책 또한 전문 사서직이 필요하다고 주

장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자료를 토대로 유추하면 일단 전국사서협회에서 주장하는 전문직 관장의 수준은 단순히 사서자격증의 소지 유무를 따지고 있는 것은 아니다. 사서자격증만을 따진다면 사서교육원을 통한 사서자격증 획득에 비판적일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여기서 언급되는 사서직 관장은 도서관이나 도서관이 속한 상위 기관 내의 사서직 공무원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사실 상위 기관의 사서직이 공공도서관의 관장직을 맡는다 하더라도 공공도서관의 관장이 자율성을 가질 수 있느냐에 대해서는 의문이다. 사서직이라 하더라도 결과적으로는 공공도서관의 관장이 아닌 상위 기관에 속한 공무원의 한 사람으로 상위 기관 조직원의 역할을 여전히 가지고 있고 상위 기관의 결정에 따를 수밖에 없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사서직 관장에 대한 인식은 2년 후 막연한 사서직 관장이 아닌 좀 더 구체화된 모습으로 나타난다. 전국사서협회소식 15호를 보면 '전국사서협회의 전망과 과제'라는 주제로 전국사서협회 내부의 토론 내용 전문을 실고 있는데 그 중 사서직 관장과 관련한 일부는 다음과 같다.

'95년에 도서관장을 사서직으로 보하지 않을 경우 단식을 하던 삭발을 하던 도서관장을 반드시 사서직으로 보해야 하겠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대안을 준비해야 합니다. 비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광주 과학원을 만드는데 원장을 공채를 통해 시험을 봐서 뽑는다고 합니다. 그러면 도서관장도 시험 봐서 뽑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전국사서협회 소식지 15호 1993, 23)

공채를 통한 관장직 선발이 이루어질 경우 상위 기관에 속하지 않은 사람을 관장으로 뽑을 수 있으며 자연스럽게 도서관은 상위 기관으로부터 상대적으로 더 높은 자율성을 가질 수 있다. 사서직이라고 하더라도 상위 기관에 속해 있는 이상 상위 기관에 구속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며 이는 김정근(1995)의 주장처럼 단순히 문헌정보학과 교수가 해당 대학도서관의 관장직에 오르는 것이 대학도서관의 전문직 관장의 의미를 지닐 수 없다고 한 것과 같은 의미이다. 결국 전문직 관장의 의미는 단순히 사서자격증을 가진 자나 사서직 관장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도서관이 속한 상위 기관으로부터 자율성을 가진 자를 의미한다.

정리하면 전국사서협회는 도서관 상위 기관으로부터 사서직의 자율성을 강화하기 위해 공공도서관의 전문직 관장 보임을 주장했던 것으로 보인다. 공공도서관에서 관장이 차지하는 지위와 영향력을 고려해 볼 때, 관장이 도서관이 속한 상위 기관으로부터 가질 수 있는 자율성은 사서직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다시 말해 상위 소속 기관으로부터 자율성을 지닌 전문직 관장을 통해 도서관의 자율성을 강화하고 이를 곧 사서직의 자율성을 획득하는 방법으로 이용했던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전국사서협회 결성준비위원회가 내세웠던 사업들 중 사서교육원의 철폐와 전문직 공공도서관 관장 보임 사업을 통해 전국사서협회의 활동에 따른 성립 요인을 분석하였다. 이들 사례들은 전국사서협회가 목적으로 하고 있던 사서직의 전문직화를 위한 노력들을 잘 보여주는 사례들이다. 전국사서협회는 사서직의 전문직성을 강화함으로써 사서직의 전문직화를 이루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었으며, 이를 위한 노력들은 구체적으로 자격 제도 강화를 통한 서비스 공급자의 통제, 도서관이 속한 상위 기관으로부터의 자율성 확보의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 5. 전국사서협회의 소강

### 5.1 전국사서협회와 한국도서관협회의 비교

김기영(2008)은 사서직은 제공하는 서비스의 특성상 조직정체성과 직업정체성의 차이가 뚜렷하지 않다고 한 바 있으며, 이러한 사서직의 특징은 직업 단체를 구성하는 과정에서도 반영되어 사서를 대상으로 하는 단체는 사서협회가 아닌 도서관협회의 형태로 나타난다고 하였다. 예를 들면 국제적인 사서들의 모임체는 IFLA(The International Federation of Library Associations and Institutions)와 같은 도서관 연합체의 형태로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IFLA는 1964년 정관을 개정하기 전까지 도서관협회를 회원 단위로 했으나 준회원 제도를 도입하여 준회원은 도서관, 서지 기관 및 도서관과 관련된 유사 기관으로 그 자격 요건을 정하였다. 현재 IFLA 회원 카테고리를 보면 Association Members과 Institutional Members만이 회의에서 투표권을 가지고 있으며, 개인 회원을 두고 있지만 회원 단위가 협회와 기관 단위로 나누어져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결국 협회 단위 또한 기관의 모임, 즉 도서관의 모임

의 형태로 나타나는 경우가 주를 이루고 있어 결국 IFLA에서 투표권을 가진 회원 단위는 도서관이라는 기관을 기본으로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sup>2)</sup>

이러한 모습은 우리나라의 도서관계에도 그대로 나타나고 있는데, 사서를 대상으로 하는 전문직 협회는 도서관법에 의해 한국도서관협회라는 조직의 조직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전국사서협회와 한국도서관협회의 목적, 사업, 회원 자격 등을 정관을 통해 비교해보면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 것을 알 수 있다. 다만 중심으로 하는 대상이 도서관이나 사서이냐의 관점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예를 들면, 회원 자격에 있어 한국도서관협회가 단체회원과 개인회원의 구분을 가지고 개인회원이 총회에서 의결권을 가질 수 없는 구조인 것에 비해 전국사서협회는 개인회원만을 대상으로 하며 개인이 총회에서 의결권을 가진 구조인 것이나, 한국도서관협회가 도서관과 관련된 구체적인 사업 내용들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러한 회원 단위의 차이는 전국사서협회가 한국도서관협회와의 차별성을 부각시키기 위한 주장의 가장 큰 근거가 되는 것이었다.

전국사서협회는 협회의 존재 이유를 설득하기 위해 한국도서관협회와의 차별성과 한국도서관협회와의 관계 설정을 뚜렷하게 할 필요가 있었다. 일단 앞에서 언급했듯이 한국도서관협회와의 차별성에 대해서 전국사서협회는 일관된 입장을 가지고 있다. 두 협회는 대상으로 하는 회원의 단위가 각각 도서관이라는 기관과 사서라는 개인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기관

2) IFLA 홈페이지에서 11월 검색(<http://www.ifla.org>)

단위의 한국도서관협회는 개인 사서들의 입장을 충분히 대변할 수 없다는 것이다. 전국사서협회 결성 준비 위원회를 조직하면서 발표한 자료를 보면,

‘사서의 권익을 대변한다는 한국도서관협회가 있으나 이는 전체 사서보다는 문교부나 공공도서관장의 입장을 대변하는 역할을 수행하였던 것이 숨길 수 없는 사실입니다. 공공도서관의 문화부 이관 문제가 대두되었을 때도 도협은 전체 사서의 의견을 무시하고 미온적인 자세로 일관했던 것에서 그 일면을 엿볼 수 있습니다.’(전국사서협회 1991, 238)

라는 한국도서관협회에 대한 비판을 볼 수 있으며, 전국사서협회 소식지 1호 중 전국사서협회의 의의와 역할에 대한 사설에서는,

‘현재의 도서관계의 단체들은 도서관문제에 대하여 주도적으로 사서들의 입장을 대변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도 우리의 활동을 촉진시켰습니다.’(전국사서협회 소식지 1호, 2)

라고 밝히고 있다.

‘도서관협회는 기본적으로 기관 단위로 기관장, 도서관과 도서관의 연합 모임이라고 보시면 돼요.’(A와의 인터뷰)

‘도서관장들이 대표로 하고 있는, 그런데 도서관장은 그 당시까지만 해도 비전문직, 사서자격증이 없는 행정직들이 주로 가지고 있던 자리이고, 그 사람들이 중심으로 움직이고 있는 것이

도서관협회이고, 도서관협회의 기금은 정부로부터 받고, 결국 일종의 정부의 관변 단체로서의 역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떤 이슈가 있을 때 그것을 풀어내는 방법에는 한계가 있었다.’(B와의 인터뷰)

위의 내용들을 종합해 볼 때 한국도서관협회에 대해 전국사서협회는 한국도서관협회 존재의 당위성, 정당성을 인정하지만 역할을 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비판적인 자세를 취했으며, 자신들과 한국도서관협회의 차이에 대해서는 대상 회원 단위에 근거하고 있었다고 할 수 있다. C의 언급처럼 전국사서협회와 한국도서관협회가 ‘공동의 목적을 가지고 다른 역할을 수행하는 조직’이었다면 전국사서협회가 가진 역할은 무엇이었는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일단 앞에서 비교했듯이 두 협회가 정관을 통해 내세우고 있는 주요 사업 내용에는 큰 차이를 볼 수 없으며 한국도서관협회가 더 광범위한 영역의 사업 내용을 가지고 있다. 구체적으로도 한국도서관협회는 협회의 목적과 사업으로 사서직의 이익을 증진시키고 지위를 향상시킬 것을 명시하고 있다. 결국 전국사서협회가 의도했던 ‘다른 역할’은 전국사서협회가 한국도서관협회와의 차이점으로 주장하고 있는 대상 회원 단위로부터 찾아야 할 것이다.

한국도서관협회가 기관 단위, 도서관의 이익을 대변하고 전국사서협회가 사서 개인의 이익을 대변한다고 할 때, 한국도서관협회와 대비되는 전국사서협회의 역할을 대상 회원 단위로 부터 찾는다면, 과연 도서관의 이익과 사서 개인의 이익은 상충하는가의 문제가 발생한다. 도서관의 이익이 곧 사서 개인의 이익으로 이

어진다면 전국사서협회의 필요성은 그만큼 줄어들어 드는 것이지만, 도서관의 이익과 사서 개인의 이익이 관계가 없거나 서로 충돌하는 것이라면 전국사서협회는 한국도서관협회와 다른 역할을 하는 조직으로 존재 가치를 지닐 수 있기 때문이다. 이 문제에 대한 대답은 전국사서협회가 주력했던 사업과 인터뷰를 통해 간접적으로 유추해 볼 수 있을 것 같다. 전국사서협회 초기의 사업은 공공도서관에 맞춰져 있었으며, 이는 공공도서관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는 것이 곧 사서직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는 길이라고 생각하였기 때문이었는데, 다음 인터뷰 내용을 보면 이에 대한 생각이 잘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공공도서관 문제에 불을 일으켜서 국민들이 도서관의 중요성을 인식하게 만들고 그 서비스가 사라졌을 때 불편하도록 서비스를 제공하고....’(A와의 인터뷰)

‘애초에 컨셉 자체가 사서 개인의 권익을 신장하는 부분도 있지만 그 부분보다는 도서관이 가져야 하는 사회적 역할과 그런 조건을 만들어 내는 쪽에 더 주력을 했고....’(B와의 인터뷰)

‘전문도서관 대학도서관은 어찌피 특정한 기관에 봉사를 하고, 또 두 기관이 있다고 해서 사회 전반적으로 도서관을 이용하고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결국 국민 전반적으로 도서관에 대한 인식이 바뀔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공공도서관이고, 학교도서관이죠. 그래서 공공도서관 그리고 학교 도서관이 제대로 활성화 되지 않는다면 도서관 문화가 정

착되기는 어렵다고 본 거죠.’(B와의 인터뷰)

‘도서관에 대한 인식이 나아지는 것이 결국에는 사서들에 대한 인식의 개선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생각한 거죠.’(B와의 인터뷰)

전국사서협회가 사서직에 대한 사회적 인식, 다시 말해 사서직의 사회적 위세를 획득해 나가는 방법으로 가장 주력했던 사업이 공공도서관이 가지고 있는 문제를 이슈화하고 공공도서관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는 것이었다는 사실은 도서관의 이익이 사서의 이익과 상충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는 하나의 근거가 될 수 있다. 앞서 A가 협회 결성을 추진하면서 사서직 운동이 아닌 ‘도서관 운동을 계속하고 싶다.’는 표현을 했듯이 전국사서협회는 도서관과 관련한 사업을 통해 사서직의 사회적 위세를 얻고자 했다는 것은 결국 사서의 이익은 도서관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과 다르지 않다. 그리고 이것은 본 연구가 근거로 하고 있는 직업정체성과 조직정체성이 뚜렷하지 않다는 사서직의 특성을 잘 보여주는 사례의 하나이다.

결국 사서의 이익이 도서관의 이익과 상충하지 않는다면, 전국사서협회가 한국도서관협회와의 차별성과 필요성을 주장하기 위해 기반으로 하고 있는 회원 단위, 즉 전국사서협회는 사서 개인을 회원의 단위로 하고 한국도서관협회는 기관, 도서관을 회원 단위로 하고 있다는 회원 단위의 차이로는 두 협회를 차별화하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

한국도서관협회와의 차별화의 실패는 전국사서협회를 보는 도서관계의 시각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러한 시각은 협회 활동에 장애물로 작용하였다. 먼저 특이할 점은 한국도서관협회, 국립중앙도서관, 국회도서관에서 발행하는 정기 간행물의 1989년부터 1992년 내용 중 전국사서협회를 언급한 글이 전무하다는 것이다. 1989년과 1992년은 전국사서협회가 언론을 통해서 가장 많이 이슈화되고 가장 많은 활동을 가진 기간이다. 최정태(1990)에 따르면 1990년 4월부터 6월의 세 달 동안 국내 신문, 잡지 등에서 보도한 도서관 관계 기사가 총 43건인데 그중 순수하게 전국사서협회에 관한 기사가 서울 9건, 지방 11건, 잡지 3건으로 전체 기사의 절반을 상회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한국도서관협회, 국립중앙도서관, 국회도서관의 세 정기 간행물 모두 국내 도서관계 소식의 단신을 전하는 코너를 가지고

있었음에도 어느 곳에서도 전국사서협회에 대한 내용은 찾을 수가 없었다. 다만 1990년의 전국도서관대회 제4주제 발표를 맡은 최정태가 ‘전문직단체 이대로 좋은가’라는 제목과 함께 전국사서협회를 직접적으로 다룬 내용이 한국도서관협회 정기 간행물을 통해 발표되었을 뿐이다. 세 정기간행물 모두 도서관계와 관련한 소소한 단신에 대한 기사를 가지고 있음에도 유독 일간지 등을 통해 사회적으로도 이슈가 되었던 전국사서협회와 관련한 내용을 전혀 싣고 있지 않는 것은 당시 도서관계에서 전국사서협회를 협력자로 인식하고 있지 않았다는 증거가 될 수 있다.

전국사서협회는 협회지를 통해 지속적으로 외부의 시각에 대한 고민을 언급해왔는데 정리하면 다음 <표 1>과 같다.

<표 1> 외부의 시각과 관련한 협회지 내용

	내 용
협회지1호	제목: 전국사서협회의 의의와 역할 ‘도서관계를 분열시키려는 소수 과격한 젊은층의 활동이라는 것과 운동권 출신의 사서들의 과격한 모임이라는 것입니다. 이는 발기인 대회 때 공무원인 사서들의 참여를 막기 위한 구체적 행동으로 표출되기도 하였습니다.’
협회지6호	제목: 사서협회 하계 수련회를 마치면서 ‘현재 사서협회는 상당히 어려운 고비에 와 있다고 생각한다. 사무실 문제, 경험부족, 예산, 홍보, 아직도 좌경 쪽으로 보는 원로들을 비롯한 기성세대들과 이를 추종하는 사서들의 시각 등 많은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
협회지10호	제목: 사서협의 조직 강화에 있어 현실적인 걸림돌들 ‘분과주의에 대하여: 전국사서협회가 특정학교 출신들에 의해 결성되고 운영되어지고 있다는 잘못된 시각은 현재 회원 확보에 큰 장애가 되고 있다.’ ‘도서관내 보수세력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보수화 되어 있던 기성 사서들에 있어 전국사서협회의 출범은 그 자체로 진보적이었을 것이다. 그 뒤 지금까지도 그러한 편향된 선입관을 버리지 않고 사서협의 활동을 색안경을 끼고 바라보는 다수의 기성 사서들에 대해 사서협의 입장을 정립해야할 것이다.’
협회지12호	제목: 1993년 전국사서협회 사업계획 및 활동 방향 ‘협회 출범 당시부터 우리의 출범을 못마땅하게 보는 일부 사람들로부터 전국사서협회가 지방 모대학 출신들의 세력 확장을 위한 조직이라는 등, 사서교육원 출신 사서를 배척하기 위한 조직이라는 등의 유언비어가 난무했습니다.’



앞에서 최정태(1990)의 자료를 인용하기도 했지만 앞의 자료들을 참고로 할 때 외부에서 전국사서협회를 보는 시각은 한국도서관협회에 불만을 가진 젊은 사서들의 모임, 사서교육원의 철폐, 특정 대학의 이익 등 소수의 이익을 위한 집단, 운동권 출신의 사서들이 모인 이념조직 등으로 정리할 수 있다. 이처럼 전국사서협회를 보는 기존 도서관계의 시각은 전국사서협회가 한국도서관협회와 뚜렷한 차이를 가지지 못하고 단순히 한국도서관협회와 대립하는 이미지만이 부각된 결과로 판단된다. 이러한 시각들은 전국사서협회는 기존 도서관계 인사들을 협회로 흡수하지 못하게 하였을 뿐 아니라 현장 사서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방해하는 요소로 작용하였다고 판단할 수 있다.

## 5.2 전국사서협회 내부의 분열

조직에 기반하고 있는 사서직의 특성은 전국사서협회를 통해 다른 모습으로도 나타나고 있는데, 전국사서협회의 쇠퇴와 관련한 협회 내에서의 관종별 입장 차이에서도 사서직의 조직 정체성과 직업 정체성이 잘 나타나고 있다.

다음의 인터뷰 내용은 협회 활동이 쇠퇴한 요인의 하나로 관종에 따른 사서들의 입장 차이를 지적하고 있다.

‘그리고 이제 내가 대학 도서관에 있는데 매일 모여서 공공도서관을 많이 지어야 하고 학교도서관을 키워야 하고 이런 내용들이 주 이슈가 되니까 대학에 있는 사람들은 자기랑 무슨 상관이 있는데 이런 말들이 나왔죠.’(A와의 인터뷰)

‘지금 전사협이 지속되지 못하고 사양길에 들 수 밖에 없었던 것이, 중심에 서야 할 공공도서관 사서들이 중심에 서지 못했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가 있는 것이고...대학도서관의 사서가 전사협 회장인데 대학도서관 문제는 다루지 않고 공공도서관 문제를 주로 다루는 것에 대해 비판을 많이 했었어.’(B와의 인터뷰)

이런 지적은 협회 활동이 활발했던 시기에도 문제가 있다는 자체적인 비판을 받기도 했는데, 이와 관련하여 협회 소식지 4호와 10호에 실린 내용은 <표 2>와 같다.

<표 2> 관종별 입장차와 관련한 협회지 내용

	내 용
협회지4호	제목: 1991년 임원 수련회 ‘자유로운 토의 시간에는 학교도서관문제가 중점적으로 제기되었다. 참석한 부산지역 사서교사가 학교도서관의 현재 상황에 대한 설명을 하였다. 그동안 너무 공공도서관에만 사업을 집중시킨 것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기도 하였다.’
협회지10호	제목: 전국사서협회 현황과 당면 과제 ‘당면 과제, 조직 강화를 위하여, 관종별 입장 차이에 대하여, 공공도서관의 문화부 이관에 관한 문제는 전국사서협회 결성에 커다란 호재가 되었으나 사서협이 공공도서관의 입장만을 대변하는 단체로 오해받는 계기가 되었다. 현재 사서들의 전국사서협회에 관한 시각은 관종별로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이를 하나로 엮어 낼 수 있는 방안이 하루 빨리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관중별 입장 차이는 관중에 따른 목적, 업무의 차이에서 오는 자연스러운 것이다. 예를 들면 공공도서관의 경우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공공의 목적을 지닌 반면 대학도서관, 전문도서관의 경우 자신들의 모조직의 구성원들만을 대상으로 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며 그에 따른 업무의 내용도 달라진다. 각 관중별로 다른 상위 기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상위 기관의 목적에 따라 도서관의 목적이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공공도서관에 이익이 되는 정책이나 사업들이 직접적으로 대학도서관이나 전문도서관에 영향을 주지 않을 수 있다. 가장 쉬운 예로 공공도서관 소관부처의 문화부 이관이 당장 대학도서관에는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 않을 수 있다. 중요한 것은 협회와 사서 개인의 시각 차이가 존재한다는 것이다. 협회 차원에서 협회가 회원 단위로 하고 있는 사서는 직업의 관점에서 바라본 사서로 사서자격증을 지닌 자, 관중을 초월한 직업 구성원으로서의 사서를 뜻하지만 사서 개인의 시각은 도서관이라는 기관에 속한 한 사람으로서의 사서이기 때문에 관중에 따른 입장 차이가 나타나는 것이다. 이는 앞에서 언급한 도서관의 이익과 사서의 이익이 상충하지 않는다는 주장과도 상통할 수도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데, 관중에 따른 사서의 입장 차이는 당장 자신이 속한 도서관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것 외의 사업이나 정책에 대한 적극적인 참여를 방해하는 요소로 작용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즉 협회 차원에서는 사서의 직업 정체성을 강조한 반면 개인사서의 경우 조직 정체성을 더 강조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전문직으로서의 사서를 보는 시각의 불일치로 인해 협회 구성원의 다

양한 의견을 효과적으로 조율하지 못하였으며, 협회의 목적과 협회 구성원의 목적이 불일치하는 현상 또한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모습은 앞 장에서 다룬 협회를 보는 외부의 시각과 함께 협회 구성원들의 낮은 참여율에 기여한 것으로 보인다.

정리하면 전국사서협회는 한국도서관협회와의 차별성을 회원 단위에 근거하였지만 전국사서협회 또한 공공도서관 사업을 통해 사서들의 사회적 위세를 추구했다는 점, 즉 사서의 이익과 도서관의 이익이 상충하지 않는다는 점을 볼 때, 설득력을 가지지 못했으며 이는 전국사서협회를 보는 시각을 전문직 단체가 아닌 한국도서관협회, 기존 도서관계에 불만을 가진 젊은 세력으로 인식되도록 만들었다. 사서의 이익과 도서관의 이익이 상충하지 않는다는 것은 전국사서협회에서 진단하는 협회 활동이 쇠퇴한 원인의 하나인 관중별 입장 차이를 통해서도 간접적으로 발현되고 있다. 전국사서협회 구성원들이 관중별로 각각의 입장 차이를 보였던 것은 사서가 자신의 의견을 표현하는데 있어서도 도서관이라는 기관에 기반하고 있다는 것을 뜻한다.

## 6. 결론

본 연구는 1990년 설립된 전국사서협회의 활동과 소강을 사서의 전문직화를 위한 전문직 단체의 관점을 통해 살펴보았다. 이를 위해 전국사서협회가 설립 초기 내세웠던 사업들을 통해 전문직 단체의 활동이 국내에서 어떤 방식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그것이 사서직의 전문

직화에 어떤 의미를 가질 수 있는지 분석하였다. 또한 전국사서협회 활동의 소강된 원인의 분석을 통해 타 전문직과 구분되는 사서직의 특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특정 직업의 전문직화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을 단순명료하게 제시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해당 직업이 속한 국가, 사회의 다양성에 따라 같은 직업일지라도 전문직화의 수준이나 형태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각각의 직업들은 타 직종과 구분되는 자신들만의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특성에 따라 또 다른 전문직화의 모습을 보일 수 있다.

전국사서협회의 성립은 사서직의 전문직화를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전문직 단체를 통해 사서직의 전문직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진행되었다. 전국사서협회는 사서직의 전문직성을 강화하는 방법으로 사서직의 자율성을 강화하고자 하였으며 이는 자격 제도의 강화를 통해 직업의 진입 장벽을 높이고 서비스 공급자의 수를 조절하는 방법과 도서관이 속한 상위 기

관으로부터의 자율성을 획득하고자 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졌다.

전국사서협회의 소강에는 사서직의 특성, 조직에 기반한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인해 조직정체성과 직업정체성이 뚜렷하지 않다는 특성이 영향을 준 것으로 판단된다. 이를 위한 근거로 전국사서협회가 획득하려는 사서직의 사회적 위세를 공공도서관 사업을 통해 이루려고 했다는 점, 즉 도서관의 이익과 사서의 이익이 충돌하지 않는다는 점과 전국사서협회 내에서 관중별 사서들의 이익이 충돌하여 분열이 일어난 것 즉, 개인 사서들의 이익은 사서가 속한 관중별로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 그 근거가 된다.

그러나 이러한 결론이 전국사서협회가 가지는 의미를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 본고의 결론은 결과론적인 것으로 전국사서협회의 성립 원인과 협회가 국내 사서직의 전문직화에 있어 가지는 의미와 역할에 대한 충분한 분석을 수행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차후 이에 대한 과정론적 접근을 통한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 참 고 문 헌

- 구혜란. 2003. 전문직 자율성의 사회경제적 토대: 이론적 접근. 『한국사회학』, 37(2): 231-248.
- 김기영. 2008. 전문직으로서의 사서직 논의를 위한 이론적 접근. 『한국문헌정보학회지』, 42(1): 313-333.
- 이연옥. 2001. 『한국 공공도서관 운동사』, 서울: 한국도서관협회.
- 이제환. 2003. 전문직 이론을 통해 본 사서직의 전문성. 『한국문헌정보학회지』, 37(2): 57-87.
- 전국사서협회. 1991. 『도서관자료집, (1) 공공도서관편』, 서울: 신학문사.
- 최정태. 1990. “전문직단체” 이대로 좋은가. 『도서관문화』, 31(5): 14-22.
- Brante. Thomas. 1990. Professional types as

- a strategy of analysis. London: Sage Publications.
- Carter, Chris. 2007. Professions, organized. In George Ritzer Ed. *The Blackwell Encyclopedia of Sociology*. Vol.7(N-P). Malden, MA: Blackwell Publishing.
- Etzioni, A. 1969. *The Semi-Professions and their Organization: Teachers, Nurses and Social Workers*. New York: Free Press.
- Macdonald, Keith M. 1995. *The Sociology of the Professions*. London, UK: sage Publications Ltd.
- Macdonald, Keith M. 1995. 전문직의 사회학. 권오훈 옮김. 서울: 일신사.
- Roos, Patricia A. 1992. Professions. In Edgar F. Borgatta & Marie L. Borgatta Ed. *Encyclopedia of Sociology*. New York, NY: Macmillan Publishing Company.